

## 간호학생의 노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권상민<sup>1</sup>, 권말숙<sup>2\*</sup>, 곽오계<sup>2</sup>

<sup>1</sup>영남이공대학 간호학과, <sup>2</sup>경운대학교 간호학과

##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Sang-Min Kwon<sup>1</sup>, Mal-Suk Kwon<sup>2\*</sup>, Oh-Gye Kwag<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Yeungnam University College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노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Y대학 간호학생 340명으로 자료는 2014년 6월부터 6월 25일까지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지식, 지식과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식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고, 노인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종교, 노인문제관심도, 지식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을 통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인관련 교육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elder in nursing students. **Method:** The subjects were 340 nursing students, from Y university colleg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Win 17.0 program. **Results:** Images, knowledge, and stereotypes plus perception about elderly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religion, interest in the elderly issue, knowledge were significant factor of senior perception explaining 55% of the variances. **Conclusion:** To improve positive perception of the elderly, it is necessary to efficient management about nursing curriculum and continuous study about that result.

**Key Words :** Aged, Knowledge, Perception, Nursing Student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눈부신 과학의 발달과 의료 환경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2013년 81세로 늘어났으며, 특히 65세의 노인의 인구가 급증하여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2011년 11.3%를 차지하였고, 2030년에는 노인인구가 24.3%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나 복지제도는 그 속도

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 특히 고령화가 지속되어지면서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어 부양세대와 피부양세대간의 갈등, 노인들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밀려나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노인들은 방치되어져 자살 문제, 노인학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3,4]. 이러한 현상은 노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함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초래하여 노인 사회의 계층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2,3]. 노인 사회의 계층화는 현대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기계화, 전문화,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과

\*Corresponding Author : Mal-Suk Kwon(Kyungwoon Univ.)

Tel: +82-54-479-1043 email: ms601626@hanmail.net

Received January 26, 2015

Revised February 10, 2015

Accpeted February 12, 2015

거 농경사회에서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존경받는 자가 아닌 가난하고 부담스럽고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되어지면서 노인들은 사회의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고 소외되어지면서 자존감도 저하되고 우울증에도 빠지게 되어 노년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5]. 특히 사회구성원이 가지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적 차이는 노인 사회의 계층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노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2].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노인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과제이다. 노인들 대부분은 만성질환으로 질병 치료보다는 간호에 대한 요구가 높은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간호사인력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3]. 이러한 간호 서비스 현장에서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2,6]. 그러나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사나 간호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에 비해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7-9].

국내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연령, 지역, 노인이 함께 동거하는 가족구조, 동거 경험, 노인과의 접촉 경험, 노인에 대한 봉사 경험,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 노인에 대한 지식 등이 있다[10-13]. 특히 노인과의 접촉 경험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14]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5,16]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일반 의료인이나 대학생을 중심으로 노인인식에 대한 조사연구[16,17]나 노인의 이미지, 지식, 인식의 상관관계 연구[2,5],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3,5,18]가 이루어졌으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에 대한 인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짐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미래에 노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간호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므로 학부과정에서부터 노인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임상현장에서 노인 간호를 제공할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 정도와 노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노인 관련 교육과정 개발에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지식, 고정관념 및 인식의 정도를 확인하고, 노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지식, 고정관념 및 인식을 파악한다.
- 2)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노인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 인식수준과 노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광역시에 소재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4년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각 학년별로 90명씩 편의표집하여 조사하였다. 표본수 선정을 위해 G\*power 3.0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15일 때 표본 수는 270명으로 산정되었으나 탈락자를 감안하여 총 360명으로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중도에 응답을 포기하거나 분석이 불가능한 20부를 제외한 340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 2.3 연구도구

#### 2.3.1 노인 이미지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박효정[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극단에 반대 형용사를 두고 응답케 하는 의미분별척도를 사용하여 부정적인 의미의 형용사에서 긍정적인 의미의 형용사까지 1~5점을 부여하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신체적 이미지 .680, 심리적 이미지 .758, 사회적 이미지 .62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이미지 .832, 심

리적 이미지 .875, 사회적 이미지 .862로 나타났으며, 노인 이미지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927 이다.

### 2.3.2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 측정을 위해 권명순, 노기영, 장지혜 [2]의 연구에서 사용한 True-False version of Facts On Aging Quiz Part I (FAQ I)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3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78이었다.

### 2.3.3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식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권명순, 노기영, 장지혜[2]의 연구에서 사용한 고정관념과 인식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0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658이었다.

## 2.4 자료 수집 방법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함께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익명성 보장 및 설문 조사 중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음과 설문지 작성에는 약 15분에서 20분이 소요됨을 알렸다. 구두 설명 후 동의하는 경우 서명을 받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전 학년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3학년은 임상실습으로 2주에 걸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 2.5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7.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은 t-test, ANOVA 분석을 이용하였고, 사후검정은 Tukey HSD로 분석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노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의하게 나타난 모든 요인들을 반응변수로 포함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81세, 성별은 여자가 95.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경우는 51.2%로 나타났다.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가 57.1%,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가 80.9%,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정도는 '관심이 있는 경우' 48.8%였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                               |                     | (N=340)      |      |
|-------------------------------|---------------------|--------------|------|
| Variable                      | Categories          | N or M(SD)   | %    |
| Age                           |                     | 21.81(±1.96) |      |
| Gender                        | Male                | 15           | 4.4  |
|                               | Female              | 325          | 95.6 |
| Grade                         | 1st                 | 87           | 25.6 |
|                               | 2nd                 | 87           | 25.6 |
|                               | 3rd                 | 78           | 22.9 |
|                               | 4th                 | 88           | 25.9 |
| Presence of practice          | Yes                 | 166          | 48.8 |
|                               | No                  | 174          | 51.2 |
| Place of Origin               | Big Cities          | 278          | 82.0 |
|                               | Medium-Sized Cities | 29           | 8.6  |
|                               | Rural Areas         | 32           | 9.4  |
| Religion                      | Christian           | 54           | 15.9 |
|                               | Buddhist            | 43           | 12.6 |
|                               | Catholic            | 27           | 7.9  |
|                               | Other               | 6            | 1.8  |
| Cohabitation with the elderly | Experienced         | 210          | 61.8 |
|                               | Not experienced     | 194          | 57.1 |
| Experience of volunteer work  | Experienced         | 146          | 42.9 |
|                               | Not experienced     | 275          | 80.9 |
| Interest in the elderly issue | Not interested      | 65           | 19.1 |
|                               | Somewhat interested | 52           | 15.3 |
|                               | Interested          | 123          | 36.3 |
|                               |                     | 164          | 48.4 |

###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이미지, 지식, 고정관념 및 인식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이미지는 학년( $F=20.76, p<.001$ ), 임상실습 유무( $t=7.24, p<.001$ ), 노인문제관심도( $F=3.74, p=.02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고 사후검증 결과 학년이 높을수록,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이미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은 학년( $F=7.20, p<.001$ ), 임상실습유무( $t=-4.50,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노인에 대한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사후검증 결과 3,4학년이

[Table 2] Image, knowledge and stereotypes plus percep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40)

| Variable                      | Categories                       | Image of the elderly |            |           | Knowledge of the elderly |            |           | Stereotypes |            |           |
|-------------------------------|----------------------------------|----------------------|------------|-----------|--------------------------|------------|-----------|-------------|------------|-----------|
|                               |                                  | M±SD                 | t or F (p) | Tukey HSD | M±SD                     | t or F (p) | Tukey HSD | M±SD        | t or F (p) | Tukey HSD |
| Gender                        | Male                             | 3.58±0.44            | 1.57       |           | 16.40±1.98               | -0.74      |           | 2.92±0.43   | -1.49      |           |
|                               | Female                           | 3.44±0.39            | (0.117)    |           | 16.79±2.31               | (0.401)    |           | 3.04±0.34   | (0.136)    |           |
| Grade                         | 1st <sup>a</sup>                 | 3.27±0.39            |            |           | 16.13±2.13               |            |           | 3.04±0.33   |            |           |
|                               | 2nd <sup>b</sup>                 | 3.29±0.39            | 20.76      | d>c>b>a   | 16.48±2.22               | 7.20       | c>d>b>a   | 3.02±0.33   | 0.45       |           |
|                               | 3rd <sup>c</sup>                 | 3.53±0.35            | (0.000)    |           | 17.38±2.30               | (0.000)    |           | 3.02±0.33   | (0.712)    |           |
|                               | 4th <sup>d</sup>                 | 3.62±0.32            |            |           | 17.31±2.32               |            |           | 3.07±0.34   |            |           |
| Presence of practice          | Yes                              | 3.58±0.33            | 7.24       |           | 17.33±2.30               | -4.50      |           | 3.04±0.36   | -0.42      |           |
|                               | No                               | 3.29±0.41            | (0.000)    |           | 16.30±2.18               | (0.000)    |           | 3.03±0.33   | (0.673)    |           |
| Place of Origin               | Big Cities                       | 3.46±0.40            |            |           | 16.74±2.27               |            |           | 3.03±0.33   |            |           |
|                               | Medium-Sized Cities              | 3.38±0.38            | 1.64       |           | 17.48±1.52               | 1.81       |           | 3.14±0.37   | 1.85       |           |
|                               | Cities                           | 3.35±0.39            | (0.194)    |           | 16.54±2.81               | (0.164)    |           | 2.98±0.44   | (0.158)    |           |
|                               | Rural Areas                      |                      |            |           |                          |            |           |             |            |           |
| Religion                      | Christian <sup>a</sup>           | 3.42±0.38            |            |           | 16.54±2.40               |            |           | 3.10±0.35   |            |           |
|                               | Buddhist <sup>b</sup>            | 3.47±0.38            |            |           | 17.07±2.00               |            |           | 3.00±0.33   |            |           |
|                               | Catholic <sup>c</sup>            | 3.54±0.46            | 0.63       |           | 17.11±2.67               | 0.58       |           | 3.21±0.33   | 2.75       | c>a>e>b>d |
|                               | Other <sup>d</sup>               | 3.33±0.30            | (0.639)    |           | 16.42±2.57               | (0.673)    |           | 2.90±0.38   | (0.028)    |           |
|                               | No religion <sup>e</sup>         | 3.44±0.40            |            |           | 16.73±2.27               |            |           | 3.01±0.34   |            |           |
| Cohabitation with the elderly | Experienced                      | 3.42±0.39            | -1.31      |           | 16.66±2.39               | -1.03      |           | 3.01±0.34   | -1.46      |           |
|                               | Not experienced                  | 3.47±0.40            | (0.191)    |           | 16.91±2.15               | (0.302)    |           | 3.06±0.35   | (0.144)    |           |
| Experience of volunteer work  | Experienced                      | 3.44±0.40            | -0.81      |           | 16.81±2.23               | 0.70       |           | 3.04±0.35   | 0.30       |           |
|                               | Not experienced                  | 3.48±0.37            | (0.414)    |           | 16.60±2.53               | (0.481)    |           | 3.02±0.32   | (0.757)    |           |
|                               | Not interested <sup>a</sup>      | 3.41±0.41            |            |           | 16.62±2.14               |            |           | 3.00±0.37   |            |           |
| Interest in the elderly issue | Somewhat interested <sup>b</sup> | 3.44±0.38            | 3.74       | ca>b>a    | 16.49±2.45               | 2.216      |           | 3.05±0.29   | 3.34       | c>b>a     |
|                               | Interested <sup>b</sup>          | 3.58±0.39            | (0.025)    |           | 17.02±2.21               | (0.110)    |           | 3.13±0.36   | (0.036)    |           |
|                               | Interested <sup>f</sup>          |                      |            |           |                          |            |           |             |            |           |
| Total                         |                                  | 3.44(±0.40)          |            |           | 16.77(±2.29)             |            |           | 3.03(±0.35) |            |           |

1,2학년보다 노인에 대한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고정관념 및 인식 정도는 종교(F=2.75, p=.028), 노인문제관심도(t=3.34, p=.03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천주교,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군이 종교가 없는 군보다, 불교나 기타 종교를 가진 군보다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식정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able 2].

### 3.3 대상자의 노인 이미지, 지식, 고정관념 및 인식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노인 이미지는 지식(r=.14,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노인에 대한 지식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17, p<.001) [Table 3].

[Table 3] Correlations of image, knowledge and stereotype (N=340)

| Variable   | Image      | Knowledge  | Stereotype |
|------------|------------|------------|------------|
|            | r(p)       |            |            |
| Image      | 1          |            |            |
| Knowledge  | .14(<.001) | 1          |            |
| Stereotype | .04(0.387) | .17(<.001) | 1          |

### 3.4 대상자의 노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노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종교, 노인문제관심도와 노인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지식을 반응변수로 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식(t=3.18, p=.002), 노인문제관심도(t=2.66, p=.008), 종교(t=2.18, p=.030)가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영향 요인은 지식( $\beta=.17$ )이었으며, 노인문제

관심도( $\beta=.14$ ), 종교( $\beta=.11$ )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간호학생의 노인인식을 55% 설명하였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f perception of the elderly (N=340)

| Variables                     | $\beta$ | t    | p    | Adjusted R <sup>2</sup> | F    |
|-------------------------------|---------|------|------|-------------------------|------|
| Knowledge                     | .17     | 3.18 | .002 | .55                     | 7.46 |
| Interest in the elderly issue | .14     | 2.66 | .008 |                         |      |
| Religion                      | .11     | 2.18 | .030 |                         |      |

#### 4. 논의

간호대학 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지식, 고정관념 및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평균 3.44( $\pm 0.40$ )점으로 중립범위 2.5점에서 3.5점내에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 학생과 비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명순[2]등의 연구결과(2.96 $\pm 0.37$ )와 대학생 3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양야기[16]의 연구결과(3.06 $\pm 0.43$ )보다 높은 점수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점수의 차이는 노인과 접촉하는 동안 갖게 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들이 노인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14]처럼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교과 과정, 실습 및 봉사활동을 통해 노인과 접촉할 기회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하였을 것이다. 특히 조사 대상자들은 정규 교과 과정에 노인간호학 이론 및 실습이 이루어지고 사회봉사 과목으로 지역사회노인봉사가 한 학기 동안 실시되어진다. 또한 매년 노인건강증진대회라는 소운동회를 개최한다. 이러한 노인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은 노인을 더 가깝게 인지하고, 잘 이해하게 되면서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접촉 경험이 노인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7] 앞으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을 측정한 결과, 지식의 전체 총점은 16.77점으로 간호학생과 비간호학생을 대상으

로 연구한 권명순[2]등의 연구에서의 16.22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송은주[18]의 결과인 간호사 12.06점, 간호학생 12.00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과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간호학과 학생들이 학과 특성상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선행연구에서 노인과 노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2,19]에 근거하여 간호대학뿐 아니라 타 전공학생들에게도 노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노년학 및 노인 관련 기초 교과목을 확대·개설하거나 노인봉사활동 등과 같은 비교과목 과정의 도입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진다.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식 정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 평균은 3.03점으로 중간기준 척도인 3점보다 높아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는 권명순[2]등의 연구에서 평균 2.29점, 신한나[20] 연구에서 2.82점보다 높았다. 현대 사회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고 사회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노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는 반면에, 간호학과 학생들은 노인과 많이 접촉할 기회를 가짐으로 노인을 가깝게 인지하고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이라 사료되어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학년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는 3,4학년 때와 임상실습을 경험한 군에서 지식이 높았고,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는 천주교, 기독교 신앙을 가졌거나 노인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과 전공 학생과 타 전공학생을 비교 연구한 권명순[2]등의 결과와 유사하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임상실습이나 여러 가지 노인과 관련된 봉사 경험이 많아지면서 노인과 노화 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는 반대로 간호학과 학생들은 임상실습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인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노인 이미지,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인 이미지와 지식, 지식과 고정관념 및 인식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결과에서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노인 고정관념 및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일 수록 인식의 수준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2,20,21]와는 다른 결과이다. 향후 같은 도구를 가지고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 노인문제의 관심도, 종교가 간호대학생의 노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 관한 지식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노인문제의 관심도가 노인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송은주[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지식과 노인문제의 관심도가 노인인식과 관련이 있는 요인임을 시사하는 결과로 본 연구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학생의 정규 교과 과정이나 비정규 교과 과정 활동으로 노인과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노인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켜 노인문제에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종교에 따른 노인인식 차이에 대한 원인규명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노인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구조, 노인에 대한 봉사 경험 등 노인과의 접촉 경험이 노인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 연구결과[10,22]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전달을 위한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노인과 접촉할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노인 인식수준과 노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수행된 연구로 연구대상은 D광역시 일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340명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2014년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학년, 임상실습 유무, 노인문제관심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지식은 학년, 임상실습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고정관념 및 인식 정도는 종교, 노인문제관심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었으며 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상자의 노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교, 노인문제관심도, 지식으로 노인인식을 55%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종교, 노인문제관심도, 지식은 간호학생의 노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을 통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인관련 교육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노인과 긍정적인 접촉 경험을 위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간호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References

- [1]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Statistic on Korea-Census population. 2012.
- [2] M. S. Kwon, G. Y. Noh, J. H. Jang, University students's images, knowledge, and stereotypes plus perceptions about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3), pp. 633-646, 2013.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3.633>
- [3] Y. J. Lee, S. J. Yoo, S. M. Kim, Study on the attitude toward elderly of nursing students. *Korean J Med Ethics Educ*, 6(2), pp. 199-211, 2003.
- [4] S. D. Chung, Y. K. Jung, Public perceptions of aging korean society and the influencing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2(2), pp. 541-557, 2012.
- [5] M. S. Yoo, J. H. Park, Y. S. Kim, Image and attitudes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toward the elderly. *J Korean Acad Soc Home Care Nurs*, 14(2), pp. 83-90, 2007.
- [6] H. K. Han, The development of an aging simul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and the effects on

-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Kore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ducation*, 13, pp. 59-78, 2010.
- [7] A. Boyd, K. Scarborough, College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beliefs about older adults. *DISCOVERY: Georgia State Honors College Undergraduate Research Journal*, 1(1), article 10, 2012.
- [8] Y. S. Lim, J. S. Kim, K. S. Kim, Knowledge and attitude of nurs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2(1), pp. 31-46, 2003.
- [9] H. J. Park, *Cognition of the elderly in aging society: Intended for an adult in twenties and thir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4.
- [10] D. A. Jansen, M. A. Morese, Positively influencing student nurse attitudes toward caring for elders. *Gerontology & Geriatrics Education*, 25(2), pp. 1-14, 2004.  
DOI: [http://dx.doi.org/10.1300/J021v25n02\\_01](http://dx.doi.org/10.1300/J021v25n02_01)
- [11] J. Y. Kim, *Nurses'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related to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4.
- [12] S. Y. Kim, K. M. Yang, H. E. Oh, J. S. Kim, Nursing and social welfar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2(3), pp. 21-36, 2006.
- [13] D. J. Van Dussen, R. R. Weaver,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 and behaviors related to the aged and to aging process. *Educational Gerontology*, 35(4), pp. 342-357, 2009.  
DOI: <http://dx.doi.org/10.1080/03601270802612255>
- [14] E. Gonzales, N. Morrow-Howell, P. Gilbert, Changing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Gerontology & Geriatrics Education*. 31(3), pp. 220-234, 2010.  
DOI: <http://dx.doi.org/10.1080/02701960.2010.503128>
- [15] S. Lookinland, K. Anson, Perpetuation of ageist attitudes among present and future healthcare personnel. *J Advanced Nurs*, 22, pp. 47-56, 1995.  
DOI: <http://dx.doi.org/10.1046/j.1365-2648.1995.21010047.x>
- [16] Y. K. Yang, A study on aging knowledge, attitudes and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in undergraduate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19(4), pp. 498-507,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498>
- [17] E. J. Lee, C. W. Han, The impact of the volunteer program for the aged o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toward the aged and the aged welfar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4), pp. 1233-1245, 2009.
- [18] E. J. Song, *Nurses and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16(2), pp. 12-19, 2004.
- [19] N. R. Cottle, R. J. Glover, Combating ageism: change in student knowledge and attitudes regarding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33(6), pp. 501-512, 2007.  
DOI: <http://dx.doi.org/10.1080/03601270701328318>
- [20] H. N. Sin, A study on Korean ·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toward the elderly. *Japanese Studies Journal*, 26, pp. 58-85, 2011.
- [21] E. J. Lee, I. W. Kang, Student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related to the elderly.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20(2), pp. 183-194, 2006.
- [22] K. R. Park, Y. S. Yi, A study on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in later life.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2(3), pp. 53-66, 2002.

#### 권 상 민(Sang-Min Kwon)

[정회원]



- 2001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6년 3월 ~ 2009년 9월 : 대구 과학대 전임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암환자, 노인

#### 권 말 숙(Mal-Suk Kwon)

[정회원]



- 1996년 8월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06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중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04년 3월 ~ 2013년 8월 : 대구 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3년 9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간호교육

곽 오 계(Oh-Gye Kway)

[정회원]



- 1988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1999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이학박사
- 1980년 3월 ~ 2004년 6월 : 대구과학대학 교수
- 2006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 건강증진